

英祖初年の 全州邑城 改築工事に 관한 再考察

서 치 상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조 형 래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 趙顯命, 全州邑城, 改築工事, 城論, 工役節減

1. 머리말

임란 이후 全州邑城이 새롭게 개축된 것은 英祖 10년(1734)의 일이다. 이 읍성은 1597년의 정유재란 때 함락된 후 황폐화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연이은 전란으로 축성할 여력도 없었지만,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체결한 「丁丑約條」에 따라 일체의 축성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¹⁾ 그러다가 1733년 英祖의 측근으로 탕평파의 영수격인 趙顯命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개축이 이뤄진다. 함락된 지 140년, 그리고 「丁丑約條」이 체결된 지 1백여 년이 지나서였다. 약 3개월이란 극히 짧은 기간에 종전보다 더 큰 규모에다 방어시설도 크게 보강되었다. 그간의 개혁적 城論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근대적인 성곽의 면모가 갖춰졌다. 새로운 전쟁방식에 대비한 城制가 갖춰지고, 방어전략의

중심으로서 平地邑城論이 구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全州邑城이 호남의 최대 도시였음에도 西, 北路의 성곽들에 비해서 수축이 늦어진 것은 그간의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두 차례의 호란으로 대북 방어가 중시된 반면, 왜구와의 관계는 다소 안정세로 들어서면서 남변 방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것이다. 그러나 英祖 초년에 발생한 정치적 변란은 남변 요충지의 축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英祖 초년에 李麟佐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이른 바 戊申亂(1728년)을 겪고 난 후 통치권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반란의 배후세력인 在地南人을 제압하고, 그 본거지의 하나였던 호남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英祖의 측근들로 道臣을 임명하고, 이어서 호남 최대의 거점인 전주읍성의 개축과 군사력의 정비에 나선 것이다.²⁾

이러한 논지에서의 연구는 이미 拙稿 「英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11개 항목의 항복조건 중 9번째 항목에 新舊 城垣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이 규정되었다.

2) 拙稿, 「英祖初年 全州와 大邱邑城 修築工事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3호(통권197호), 2005. 3에서 고찰된 바 있다.

祖初年 全州와 大邱邑城 築造工事 연구」(2005. 3)란 제목으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연구는 1734년의 개축공사 기록인 『築城啓錄』이 입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英祖實錄』과 『備邊司啓錄』, 『承政院日記』, 그리고 기타 조영 기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축성을 기획했던 趙顯命의 「豐南門樓記」에 그 제목을 보이는 『築城啓錄』이란 문건은 멸실되고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趙顯命의 후손인 豐壤 趙氏家에서 『築城啓草』란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다.³⁾ 아직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대체적인 개요가 소개됨으로써 위 연구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자료의 입수로 공사내용에 대한 정치한 규명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그간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英祖初年 全州와 大邱邑城 築造工事 연구」(2005. 3)의 터전 위에서 새롭게 발굴된 『築城啓草』를 통하여 1734년의 全州邑城 개축공사에 대한 건축 생산사적 고찰을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임란 직후부터 제기된 개혁적 城論이 趙顯命에 의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구현되었는가를 규명하는 한편, 그 무렵의 실용주의적 경향으로서 공역 절감을 위한 방안의 규명에 주안 하고자 한다.

2. 戊申亂과 全州邑城

趙顯命에 의한 1734년의 全州邑城 개축은 英祖 4년에 발생한 戊申亂이 그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⁴⁾ 戊申亂은 정권에서 배제된 李

麟佐(?-1728년)를 중심으로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가 연합해서 무력으로 정권탈취를 기도한 사건이다. 반란은 趙顯命을 비롯한 英祖의 측근 인물들에 의해서 이내 진압되었다. 그러나 그 배후세력인 在地南人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심을 무마할 것이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그런 점에서 全州는 嶺南의 大邱나 東萊 등과 같이 집권세력이 예의주시하던 지역 중 하나였다. 즉 이곳은 애초 반군이 진입을 계획했던 곳이었고, 그때 전라감사로 있던 鄭思孝(1665-1730년)가 반란에 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태가 반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鄭思孝가 태도를 돌변하여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런 연유로 太仁에서 군사를 이끌고 金丘를 거쳐 이곳에 도착했던 朴弼顯(1689-1728년)이 실패를 겪게 된다.

반란이 진압된 후 鄭思孝는 그간의 이유로 파직당한 뒤 하옥되고, 국문을 받던 중 장살당하고 말았다.⁵⁾ 당연히 이곳 유력자들이나 민심의 동요가 없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 강화를 위해서 읍성의 대대적인 개축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 英祖의 측근 인물들이 道臣으로 부임하면서 공사가 추진된 것이다.⁶⁾ 趙顯命이 경상도 관찰사에서 전라도 관찰사로 자리를 옮긴 해가

4) 尹用出, 앞 책, p.100, 1731년의 東萊와 1734년의 全州邑城 축조 동기를 戊申亂으로 추정한다.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권, 웅진출판사, 1994, p.788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권, 웅진출판사, 1994, pp.176-177, 이런 사정은 大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군 중에는 영남에서 호응한 세력이 적지 않았는데, 安陰人으로 鄭希亮(?-1728년), 尙州人으로 金弘壽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한 때 安陰, 巨昌, 陝川, 三嘉 등을 점령했고,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의 반군과 합류할 계획도 있었다. 大邱에서 멀지 않은 尙州는 李麟佐가 이주해 있을 때 朴弼顯(1680-1728년) 등과 반란을 모의했던 곳이며, 실패한 반군 일부가 숨어 지내던 곳이다.

3) 유재춘, 「18세기 全州府城 築城記錄 <築城啓草> 研究」, 『한국사 연구와 고문서』, 한국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강원대학교 공동심포지움 자료, 2005. 10

1733년이다. 그는 부임 즉시로 全州邑城 개축을 추진한다. 이곳은 大邱와 마찬가지로 監營이 설치되었음에도 읍성은 폐허화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제대로 읍성조차 갖추지 못한 만큼 이른 바 ‘備倭策’의 일환으로서도 축성 명분이 충분했다. 이러한 취지는 趙顯命의 啓辭에 잘 나타나 있다. 즉

‘戊申亂 중에 大邱府가 성곽이 없었던 까닭에 架山에 들어가 지키자는 浮議가 있기까지 했으나 道臣이 말을 듣지 않아 붕괴되는 근심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기에 臣은 이에 더욱 臣의 의견이 틀림없다고 여기며 築城의 계획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辛壬大倭를 만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에 미쳐 송구스럽게도 本道를 맡았지만, 臣의 監營이 소재하는 全州府城이 어느 세월에 設築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습니다. 壬亂 때에는 옛 名臣 李廷鸞이 城을 지키며 왜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으니 그 地勢의 이로움을 족히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眞殿이 奉安된 곳이니 사체가 더욱 특별하여 결단코 가볍게 버릴 곳이 아니옵건대 지금에 이르러 頽毀되고 과반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허소하니 嶺南의 城이 없는 곳과 다를 바 없습니다. 陰雨之道이니 불가불 한 차례 수축하여 不虞에 대비하는 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⁷⁾

라 하면서 그가 있던 大邱와 마찬가지로 읍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개축할 것을 건의했다. 그곳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책이란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의도는 英祖의 말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즉, 趙顯命의 후임으로 경상도 관찰사로 나아가는 閔應洙에게 英祖는 다음과 같이 명한다. 『英祖實錄』 英祖 11년 2월 29일 庚午條에

‘慶尙道觀察使 閔應洙가 하직인사를 하니 상이 불려서 보았다. 閔應洙가 영남지방을 진정시키고 인재를 장려하여 선발할 뜻을 힘써 아뢰니 상이 말하기를 豊原君도 또한 진정시킬 방도를 일찍이 말했는데, 卿은 묵묵히 이 뜻을 본받아 실천하도

록 하라. 영남지방의 일은 하나 같이 卿에게 부탁하노라 하였다’⁸⁾

라 했다. 여기서 豊原軍이 곧 趙顯命이다. 일찍이 그가 戊申亂 직후 영남지역 민심의 진정을 위한 방책으로 大邱에서의 읍성 축조를 건의한 바 있었는데, 이를 그의 후임 閔應洙에게 英祖가 당부한 것이다. 閔應洙도 그 방안으로 배후세력인 소론과 남인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답했다.⁹⁾ 戊申亂 직후의 호남과 영남지역의 사정과 함께 이를 계기로 읍성 축조가 추진되는 과정을 알게 해준다.

3. 趙顯命과 改築工事

3-1. 觀察使 趙顯命

趙顯命은 英祖의 탕평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측근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景宗 때부터 왕세제인 英祖를 보호하는 데 크게 힘쓴 바 있다. 英祖 즉위 후에는 持平과 校理를 역임하



<그림1> 趙顯命 (1690~1752)

다가 戊申亂이 발생하자 四路都巡撫使 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종군했다. 반란이 진압된 뒤 奮武功臣 3등에 錄勳되어 豊原君에 책봉되었고, 이후 大司憲, 都承旨 등을 거쳐 1730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나아가게 된다. 趙顯命은 관찰사로 부임한 직후부터 大邱에서의 읍성 축조를 계획했지만 실현시키지는 못했다.¹⁰⁾ 大邱에는 임란 직후부터 監營이 설치

8) 『英祖實錄』 英祖 11년 2월 29일 庚午條

9) 『英祖實錄』 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

10) 『英祖實錄』 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에는 ‘左議政 金在魯가 말하기를 慶尙監司 閔應洙가 大邱城을 쌓도록 청하였는데, 그곳의 지형이 비록 성을 지키기는 어렵다

7) 『築城啓草』 癸丑十一月二十日, 유재춘, 앞 논문, p.141에서 전제

되어 있었으나 그때까지 읍성은 없는 상태였다. 그 대신 추진한 것이 東萊邑城 개축이었다. 그의 수하로서 동래부사로 있던 鄭彦燮(1686-1748년)을 책임자로 삼아서 임란 때 함락된 채 방치되던 읍성을 개축했다.¹¹⁾ 東萊 역시 戊申亂의 배후세력인 在地南人의 근거지로 인식된 것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¹²⁾

趙顯命은 東萊邑城 개축을 성공리에 마친 후 1733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옮겨간다. 그곳에 부임한 직후부터 앞서 東萊에서의 축성 경험을 바탕으로 全州邑城 개축에도 나선다. 간혹 축성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趙顯命은 이곳을 진정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그의 뜻을 관철시켰다.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에 는

‘본 고을 府城을 살펴 본 즉 원래가 미흡해서 세월이 오래되어 황폐화되어 다시 남은 곳이 없습니다. 무릇 豐沛 옛 고을인 이곳은 眞殿이 봉안된 곳으로 만약 暴亂을 막을 장치가 어지럽혀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정비를 한다면 어찌 안심되지 않겠습니까!’¹³⁾

라 하여 개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폭란을 막을 장치를 평온한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폭란이란 왜구의 침략을 지칭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戊申亂을 뜻하기도 했다. 소우를 막을 장치를 사전에 마련

하더라도 울타리로 막을 장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趙顯命도 일찍이 그곳에 성을 쌓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였 습니다고 하니 상이 가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11) 『萊州築城碑記』에 ‘공이 처음 부임하여 변경이 소홀함을 크게 두려워하고는 사변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은 시대가 태평하다고해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개인히 성을 수리하는 일에 뜻을 두고서 어느 날 밤 미복 차림에 몰래 나가서 城池를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은 이를 알지 못했다. 마침내 계획을 정하여 봉서로 장계를 발송했는데, 그때 관찰사 趙顯命공이 의론에 능히 합하여 도와서 성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2) 尹用出, 앞 책, p.98

13)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

해야 하고, 따라서 축성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공사 중지로 마음이 쏠리고 있던 英祖의 마음을 돌려놓으면서 완공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英祖의 측근세력인 그가 양남의 道臣에 번갈아 임명되고, 서둘러 監營이 설치된 곳의 읍성 개축에 나선 것은 앞서와 같이 戊申亂 직후의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趙顯命의 후임으로 1736년에 大邱邑城을 개축한 경상도 관찰사 閔應洙¹⁴⁾나 앞서 1731년에 東萊邑城 개축을 맡았던 동래부사 鄭彦燮도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특히 閔應洙는 마치 趙顯命의 경력을 뒤따르듯 했는데, 그는 1728년의 戊申亂 중에 동래부사로 임명된다. 당시 동래부사 權孚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在地南人들이 반군과 결탁하려는 조짐이 간파됨으로써 그를 대신해서 부사로 급히 파견된 것이다.¹⁵⁾

한편 趙顯命에 의한 東萊와 全州邑城 개축 공사는 정축약조 이래 그 선례가 흔치 않았던 만큼 그의 경영방식은 이후의 축성에서 중요한 典據가 되기에 충분했다. 예컨대 閔應洙가 추진했던 大邱邑城 개축이 반대¹⁶⁾에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권, 웅진출판사, 1994, p.770, 閔應洙도 英祖의 측근으로 1710년에 司馬試에 합격해서 주부, 정랑에 올랐으나 辛壬士禍 때 사직했다가 英祖가 즉위하자 다시 정랑이 되었다. 이듬해 교리를 지냈으나 丁未換局 때 파직되지만, 戊申亂 때 湖西按撫使 金在魯의 종사관으로 군기를 엄정히 하는 등 공을 세워 동래부사가 되었다. 이후 충청도와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부계학, 대사간 등을 거친 뒤 1734년 趙顯命의 후임으로 경상도관찰사가 된다.

15) 『英祖實錄』 英祖 4년 4월 24일 甲辰條에, ‘朴師洙는 말하기를...중략...東萊府使 權孚가 변란이 발생한 이후 번도 倭館의 사정에 대해 道臣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했으므로, 신도 엄중히 신척했습니다만, 權孚는 끝내 回報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듣건대, 漆谷 남쪽 사람들이 피난한다고 일컬으면서 권부에게로 가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심지어 洛東江에 배를 준비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새로 임명된 수령을 재촉해서 내려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閔應洙에게 말을 주어 發送시키라 했다’고 기록된다.

16) 戊申亂 때 의병을 일으켜서 공을 세운 金聖鑿

부딪히자 英祖는 매번 趙顯命의 東萊와 全州에서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東伍軍의 동원을 위해 巡檢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할 때는 東萊를 예로서 허용했고, 또한 공사 중지 상소에는 全州的 예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¹⁷⁾

한편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후 趙顯命은 공조참판으로 승진하고, 이어서 어영대장, 부제학,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의 중앙 요직을 두루 거친다. 특히 1740년에는 우의정에 발탁되고, 뒤이어 좌의정으로 승진한다.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문란한 良役行政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군역 및 군역 부담자 실제수의 파악에 착수하고, 이를 『良役實總』으로 간행했다. 아울러서 민폐의 근본이 良役に 있다 하여 군문, 군역의 감축과 良役財政의 통일, 어영세의 국고환수, 結布制의 실시 등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했던¹⁸⁾ 당대의 실천적인 개혁가이자 經世家였다.

어떻은 오랜 기간 축성이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趙顯命은 연이은 축성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장, 단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개혁적 성향의 趙顯命이었던 만큼 개혁적 城論과도 이미 접했을 것이고, 공역절감을 위한 방안의 모색도 그의 주요 관심사였을 것이다. 앞으로 서술할 그의 개

혁적 성론과 공역절감 노력을 통하여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2. 개축공사의 전말

(1) 개축 전의 상황

全州에 읍성이 언제 처음으로 축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곳이 오래 전부터 호남의 중심지였고, 후백제 때는 甄萱城이 있었던 만큼 일찍부터 성곽이 축조되었음은 틀림없다.¹⁹⁾

이후 사정으로는 고려 말인 1377년과 1379년 두 차례에 걸쳐 왜구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다시 1389년에 崔有慶이 관찰사로 있을 때 읍성을 축조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석축으로 둘레가 5,356척, 높이가 8척이며, 성 안에 우물이 223소’라 했다. 이 성곽은 임란 전까지 수축한 적이 없었고, 달리 피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임란 직전까지 유지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읍성은 1597년 丁酉再亂 때 호남으로 침입한 왜병에 의해서 함락되고 만다. 이에 柳成龍이 나서서 『紀效新書』의 제도에 따라 砲樓 등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중도에 그치고 말았다.²⁰⁾ 그런 것을 1733년 趙顯命이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개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²¹⁾

(2) 공사일정

공사는 대략 3개월 만에 완공을 본다. 먼저 趙顯命이 쓴 「豐南門樓記」에는

(1684-1747년) 등이 민력을 침탈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17)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에는 全州 邑城 축조를 중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趙顯命은 東萊 邑城 때보다 훨씬 적은 물자와 공역으로 추진된다고 하며, 英祖 12년 2월 30일 甲寅條에는 大邱 邑城 축조 때 각 진영에 속한 東伍軍의 巡點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 이전의 東萊의 사례를 들고 있고, 12년 4월 5일 己巳條와 『備邊司謄錄』 英祖 12년 4월 7일조에 前正言 金成鐸이 공사 중지를 상소한 데 대해서 全州의 예를 들어서 道臣에게 말긴 바 있다고 기록된다.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권, 웅진출판사, 1994, p.652

19) 『新增東國輿地勝覽』 全州府 邑城條에 ‘둘레가 5,356척, 높이 8척, 우물이 10곳’이라 했다.

20) 柳成龍, 「戰守機宜」 守成編, 『西厓先生文集』 卷之十四, 「雜著」,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21) 『全州府邑誌』 城廓條에 趙顯命이 개축한 읍성에 대해서 ‘周圍二千六百十八步 高八尺 女堞一千三百七 雉城十一 甕城一 砲樓十二 砲穴三千九百二十一 塚口一千三百六 城門四 南曰明見樓 三層門象虹霓 傍有鍾樓 重四千五百斤 西曰相西門 二層門象虹霓 東曰判東門二層 北曰中車門二層 內有井二百二十三 濠池無’라 기록하였다.

‘이듬해 甲寅 五月 甲申日에 城隍祭를 올리고, 옛 城을 철거하기 시작해서 黃方山 黑石洞에서 伐石을 시작하고, 2월과 3월에 돌을 운반해 오며, 4월, 5월, 6월 간에는 새 돌과 옛 돌을 섞어서 城을 쌓고, 7월과 8월에는 虹霓로 城門을 세웠다.’²²⁾

고 했다. 여기서 甲寅五月은 甲寅正月의 오자인 것 같다. 왜냐 하면 山祭를 올리는 것이 공사 이후인 5월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월 7일의 城隍祭를 시작으로 그 직후부터 옛 성의 철거와 별목, 운석을 거쳐 6월 까지 예는 축성이 끝나고, 이어서 8월에 성문 공사도 끝났다고 했다.



<그림 2> 豊南門 전경

그런데 금번의 『築城啓草』에는 보다 정확하게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즉, 1734년 1월 10일 별석 공사를 시작해서 3월 말까지 運石을 마치고, 본격적인 축성은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體城과 雉城, 女塼 공사까지를 완료했으며, 그리고 문루 공사는 9월까지 완공되었다고 했다.²³⁾ 전체 공정을 8개월이 걸렸지만, 실질적인 축성 공사는 3개월 내에 끝났다. 종전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한 속성 공사였다. 그 직전 趙顯命이 역시 탕평과의 일원이자 그의 수하였던 부사 鄭彦燮과 함께 수축한 東萊邑城 공사에 비해서도 1개월이나 더 빨리 끝마친 셈이었다. 앞서 공사의 경험이 축적된 데다 공역 절감 노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3) 공사내용

22) 趙顯命撰, 「豊南門樓記」, “翌年甲寅五月甲申 告祭城隍 掇舊城 伐石於黃方山黑石之洞 二月三月運石 四月五月六月參新舊石築之 七月八月設虹霓 建門於是乎”

23) 『築城啓草』 樓門節次, 유제춘, 앞 논문, p.155에서 전제

1734년의 개축으로 全州邑城은 그 면모가 적지 않게 달라졌다. 길이가 늘어나서 성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방어시설도 크게 보강되었다. 표 1은 성곽 규모와 시설을 이전의 기록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내용은 고려 말 崔有慶이 축조한 규모와 시설로 둘레가 5천여 척으로 임란 전에 축조된 다른 읍성의 규모와 흡사하다. 반면에 축성공사 후의 기록인 『全州府邑誌』와 『增補文獻備考』에는 둘레가 2,618보로 나타난다. 시기별로 用尺이 다르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기록만으로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개축 전의 성곽 치수를 기록한 「舊城步數」에 따르면 전체 성 둘레가 2,249보로 개축 후 보다 369보 정도 짧았던 것으로 파악된다.²⁴⁾ 보강이 요구되던 방어시설로 여첩이 1,300여개나 설치되고, 포루 등도 새롭게 설치되며, 포혈도 4천여 개나 만들어졌다. 또한 성문 네 곳을 모두 누각이 건립되었다.²⁵⁾

[표 1] 자료별 改築 전후의 규모와 시설

區分	둘레	높이	女塼	雉城	砲樓	甕城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5,356척	8척	-	-	-	-
全州府邑誌 (미상)	2,618척	8척	1,307	11	12	1
增補文獻備考 (1908년)	2,618보	8척	1,307	11	-	1
築城啓草 (1734년)	2,618보	20척	1,307	11	-	1

한편 금번의 『築城啓草』에 기록된 내용은 위와 대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일부는 전혀 다른 것도 발견된다. 즉, 둘레는 『全州府邑誌』 등과 차이가 없지만, 높이가 20척으

24) 『築城啓草』, 癸丑 十一月二十日, 舊城步數

25) 『全州府邑誌』에는 南門을 3층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2층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성문을 2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戚繼光의 『紀效新書』에도 나와 있어서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로 다른 기록의 8척보다 한층 높게 기록된다.²⁶⁾ 이처럼 8척과 20척으로 크게 차이나는데, 이는 아마도 기록들마다 用尺이 달랐던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즉 『築城啓草』에서의 用尺은 그 직전에 趙顯命이 역시 주관했던 東萊邑城 개축 때처럼 指尺을 쓴 반면, 다른 8척으로 된 기록들에서는 布帛尺을 썼던 때문으로 추측된다.²⁷⁾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의 全州邑城 높이 실측치가 4m에 달했다. 이는 指尺으로 20척에 해당하고, 布帛尺으로는 8, 9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기록에 없는 여장의 치수도 기록되는데, 높이가 6척, 너비 10척, 堞口 1척이며, 여장 미석은 체성 위로부터 8촌정도 나오게 시공하고, 여장 두께는 2척 5촌이란 내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장에 낸 포혈은 안쪽은 넓고 바깥쪽은 좁게 해서 좌우 放砲에 편리하도록 했다고도 기록된다.²⁸⁾ 그래서 포혈 수는 여장 1개 당 3개로 보면, 1,307첩에 포혈 수가 모두 3,821개로 기록된다. 그런데 웅성의 경우 『築城啓草』에는 종전의 4개에서 1개로 줄었다고 했다. 즉 이 문건에는 개축 전의 성곽 치수를 「舊城步數」라 하여 南門東邊甕城, 東門北邊甕城, 北門東邊甕城, 西門南邊甕城 등 4개의 웅성이 있었는데, 이를 개축하면서 북문 밖에만 웅성 1개를 설치했다는 것이다.²⁹⁾ 이처럼 웅성 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 趙顯命은

‘四門 甕城은 문을 차단하고 대적하는 城制이므로 불가불 설치해야 하나 甕城을 축조하는 것이

原城에 비해 극히 어렵고, 반드시 體大之石으로 좌우를 단단히 축조하고 위에는 馬路를 내어 軍兵이 대행할 수 있어야 나가서 城門을 공격하는 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주먹돌로 쌓아 올려 겨우 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게 하면 비가 오면 번번히 頽毀되어 修築은 다만 民力만 허비하는 것이다.³⁰⁾

고 했다. 웅성을 적합한 방법에 의해 축조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題한 것을 보면 단지 서문 밖에만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서문이 가장 적을 막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실제 축조된 것을 보면 웅성은 서문이 아닌 북문에 설치되었다.³¹⁾ 그 대신 종전에 없던 치성이 크게 증가했다. 11개로 늘어난 치성이 쌓기 힘든 웅성을 대신해서 적의 접근을 방지하는 데 효력이 있다고 본 까닭일 것이다.

[표 2] 役所別 공사구간, 일정 및 監役官

役所	工事區間	雉城	工事期間	監役官			
				都監	色吏	差使	都牌將
左1所	南門-東門 (627步)	3	3/1-5/16	1	1	1	1
左2所	東門-北門 (697步)	3	4/1-6/26	1	1	1	1
右1所	南門-西門 (561步)	3	4/1-5/29	1	1	1	1
右2所	西門-北門 (733步)	2	4/1-7/1	1	1	1	1

(4) 役所와 監督官

『築城啓草』에는 공종별 작업소와 체성을 길이와 치성 수에 따라 分定한 역소별로 監董官과 이하 직원이 기록되어져 있다.

먼저 체성 2,616보를 쌓는 데는 左1所, 左2所, 右1所, 右2所 등 4개소로 역소를 나눠서 監董官 과 이하 공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6) 유재춘, 앞 논문, p.144

27) 全州邑城 개축 때 指尺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직전 東萊邑城에서는 지척으로 城基의 측량이 이루어졌다.(東萊府築城謄錄) 趙顯命이 두 공사를 연이어 주관한 만큼 指尺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8) 유재춘, 앞 논문, p.157

29) 『築城啓草』 癸丑十一月二十日, 유재춘, 앞 논문, p.145에서 전제

30) 각주 28) 참조

31) 『築城啓草』 築城節次, 유재춘, 앞 논문, p.146에서 전제

34 논문

표 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역소별로 공사구간과 그 사이 치성의 수는 비교적 균등하게 나뉘어서 각기 1인의 都監 아래 色吏, 差使를 1인씩 두고, 10牌將을 통솔하는 都牌將을 1인씩 두었다. 성문 축조공사도 마찬가지로 남, 서, 동, 북문 등 4문의 虹霓門 축조와 문루 공사가 추진되는데, 표 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각 성문마다 監官을 책임자로 色吏와 差使가 파견되는데, 2층 누각에다 虹霓를 안팎으로 만드는 등 규모가 큰 남문에는 6명이 監役官이 투입되고, 공사기간도 더 많이 소요되었다.³²⁾

[표 3] 城門別 공사내용, 기간 및 監役官

城門	工事內容	工事期間	監役官		
			監官	色吏	差使
南門 (明見樓)	內,外 虹霓, 2層樓, 丹青	5/27-9/14	2	3	1
西門 (相西門)	內 長蓋石, 外 虹霓 單層樓	6/24-8/19	1	1	1
東門 (判東門)	內,外 長蓋石, 單層樓	6/28-8/21	1	1	1
北門 (中華門)	內,外 長蓋石, 單層樓	6/29-8/20	1	1	1

(5) 工匠과 役軍

『築城啓草』에는 78명의 監役官 외에 埋炭을 비롯한 공종별로 동원된 역군 연인원을 포함 171,485명이라 했다. 표 5는 이를 공종별로 정리한 것이다.³³⁾ 이 숫자는 그가 앞서 1731년에 수행했던 東萊邑城의 경우는 27만 명에 달했는데, 그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이다. 공사규모는 더 컸음에도 調發한 수가 극히 적은 것은 童車를 별도로 만들고, 5명을 여기에 부쳐서 돌을 나르게 하는 등 工力을 크게 간편히 한 까닭이라 했다. 공종별로는 역시 예석 작업에 가장 많은 수가 투입되고,

[표 4] 役所와 城門別 工匠과 役軍 수

區分	工 匠				役 軍			計	
	石手	木手	蓋匠	畫員	僧軍	使役軍	軍兵		募軍
左1所	35				4,030		1,370		5,400
左2所	30 (27)				6,798		77	813	7,688
右1所	48				5,918		438		6,356
右2所	30 (34)				6,251		115	161	6,527
南門	59		7	18		4,999			5,083
西門	30	7	4	15		1,665			1,721
東門	20	8	3			1,410			1,441
北門	25	6	3			1,967			2,001
計	277 (61)	21	17	33	22,996	10,041	2,000	974	36,217

[표 5] 工種別 役軍 수

區分	役軍種類	人員數	備 考
埋炭	運炭軍	1,747	煙軍
燔灰	運灰軍	878	
燔瓦	未詳	미상	該面 民人 還上과 軍兵點告時 운반
伐石	石手	130	
	冶匠 및 助役	미상	
曳石	軍	97,468	
毀城	毀撤軍	3,920	
築城	石手	143	
	使役軍	25,971	
女堞	使役軍	16,302	
樓門	使役軍	24,926	曳石軍 포함
計		172,485명 이상	

그 다음으로 축성, 루문, 매탄 작업 순이었다.

한편 역소별로는 동문에서 북문 간의 左2所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성문으로는 2층 누각에 단청과 내외 虹霓門을 내는 남문 공사에 월등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공장별로는 석수가 전체의 80% 정도로

32) 유재춘, 앞 논문, pp.154-158에서 정리

33) 각주 31) 참조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역군별로는 僧軍이 64%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使役軍, 軍兵 순으로 역군 동원이 대부분 부역제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募軍이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으나, 1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군으로 일하는 등 노동조건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표 6] 각 營邑에 分定된 物力

區分		數量	備考
人力	僧軍	5,455명	
	官屬軍	1,810명	
物資	童車	416건	
	車子	2건	
	雪馬	41건	
	靑苔木	2,128속 반	
	夢同柄木	2,967개	光耳柄木 포함
	乾葛	567동 40사리	
	各項 雜木	7,326개	지래목 포함
	正鐵	24,064근 2냥	

(6) 物資와 器械

성역에 소요된 물력은 대부분 趙顯命이 스스로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러한 물력은 『築城啓草』에서 상당 물량이 전라도 내 각 營邑에 분정된 것들로 확인되며, 그밖에 국왕에게 상소한 내용과 같이 산하 고을의 營吏들이 賑恤米를 착복한 것이 막대한 물량이었고 여러 곳에 이산해 있던 것을 수습한 것도 포함되었다.³⁴⁾ 이 밖에도 인력과 물자를 도내 각 영읍에 분정해서 조달했는데, 표 6은 이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당시 분정 대상 영읍은 병영과 좌수영, 우수영 등 병수영 3곳, 고산을 비롯한 47곳의 읍을 합쳐 50개 지역이었다. 이 밖에도 산성 5곳, 도내 각 사찰에까지 공사인력과 물자가 분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동거의 분정이다. 趙顯命이 공역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서 5인을 한 조로

물자를 실어 나르게 했다는 童車를 각 영읍으로 하여금 제작해서 보내도록 했는데, 그 개수가 416건에 달했다. 童車와 같은 종류로 車子나 大童車, 營造童車도 제작해서 썼으며, 雪馬(썰매)도 돌이나, 흙, 목재 등의 운반을 위해서 분정하기도 했다.

한편 『築城啓草』에는 城役に 들어간 총재원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를 보면 미 4천석을 비롯해서 錢文 1,700냥, 正才 50동, 正鐵 24,064근 2냥, 炭 5,220석, 石灰 3,319석, 乾葛 567동 40사리, 靑苔木 2,128속, 童車 418건, 夢同柄木 2,413개, 雇價所捧錢 4,379냥 3전(각 읍 관속 및 본부 煙軍 등 雇錢 포함), 그리고 全州府에서 준비한 米 500석, 錢文 1,500냥이 소요되었다.³⁵⁾

4. 趙顯命과 개혁적 城論

4-1. 탕평파의 柳馨遠에 대한 평가

趙顯命 등이 읍성축조 때 새로운 성론을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분야의 개혁을 실천했던 만큼 앞서 柳馨遠(1622-1673년) 등이 제시한 개혁안을 익히 접했음이 분명하다. 이는 탕평파의 일원이었던 洪啓禧(1703-1771년)가 젊은 시절부터 柳馨遠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데서 짐작이 가능하다. 洪啓禧는 趙顯命의 천거로 벼슬길에 나갔던 인물이었다. 洪啓禧가 병조판서로 있을 때 趙顯命은 영의정 자리에 있었다. 그때 趙顯命과 함께 均役法의 제정을 주관해서 「均役事目」을 작성, 시행한 바 있다. 당시로서 대단한 개혁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洪啓禧가 크게 영향 받은 인물이 柳馨遠이었다. 趙顯命 등의 탕평파가 그간의 개혁론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게 하

34)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

35) 유재춘, 앞 논문, pp.148-154에서 정리

는 대목이다. 이런 사정은 洪繼禧가 1737년에 英祖의 명으로 柳馨遠의 略傳을 집필한 『礪溪傳』에 잘 나타난다. 즉,

‘제가 젊어서 어느 사람 집에서 『礪溪隱錄』을 얻어 보고 반가워서 그것을 빌려다가 베껴서 두고 깊이 연구한 결과 수년 후에야 그 책의 大義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그의 曾孫進士 柳發에게서 그의 遺稿를 모두 얻어 熟讀하고 그가 분명히 천하의 큰 선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³⁶⁾

고 했다. 당시의 개혁론자들 사이에서 柳馨遠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음을 순회한 것이다. 다만 柳馨遠의 『礪溪隱錄』에 담긴 개혁론은 英祖 초년까지도 그 내용이 ‘迂闊해서 실행할 수 없다’³⁷⁾ 하여 공인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개혁론자들에게는 당대 최고의 經世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탕평과의 영수 격이던 趙顯命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田制와 良役制의 개혁에 앞장섰고, 水車 만드는 사람을 여러 도에 보내서 백성들이 만들어 사용하게 할 것을 주장했던³⁸⁾ 사실에서 그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柳馨遠의 개혁적 성론은 趙顯命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柳馨遠의 성론 중 趙顯命에게 영향을 주었을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7은 『礪溪隱錄』 城池編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築城啓草』 등에서 趙顯命이 柳馨遠의 城論을 직접 활용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英祖 초년의 연이은 읍

[표 7] 柳馨遠의 城論 개요

區分	內 容
防禦據點	邑城으로 삼아, 常居民을 수용하고, 邑治와 일치
築城時期	농한기를 이용 軍人을 징발하되 番과 調練 면제
築城責任	地方長官 책임 하 인근 營邑의 役軍 合力 축성
工數計算	地理測量과 함께 工數 계산 후 役軍 인원수 타산 左, 右軍으로 분정하고 東伍制와 같은 工役組織 伍長-牌將-都牌將-監將-別將-左, 右軍將 식 편제
城廓規模	體城 높이는 女牆 제외 5丈, 女牆 높이는 10尺
城廓施設	紀效新書에 따라 雉, 甕城, 牛馬墻, 壕字를 축조 空心墩式 砲樓를 쌓고, 3면에 벽돌로 砲穴 축조
築城材料	體城 허리 이하는 돌로, 그 위는 벽돌로 축조 女牆, 壕字 변두리, 砲穴 등은 벽돌로 축조

성 개축 때 이러한 성론이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규모와 방어시설 등이 중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에서 읍성 중심의 방어개념이 적용되며, 구역절감을 위한 개선책으로 牌 단위의 이른바 구역책임제를 적용하며, 지방장관 책임 하에 재원을 조달하는 料辦取利 방식을 적용하며, 지역거점을 대대적으로 축성하여 하나로 합치는 거점 축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후 趙顯命은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都城 수축방식으로 구역책임제를 재차 주장하며³⁹⁾, 또한 그가 축성경비를 料辦取利해서 조달했던 방식은 이후 鄭若鏞 등에 의해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⁴⁰⁾ 한다. 이후의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 때의 경험은 華城築造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다.

4-2. 平地邑城論의 구현

趙顯命은 全州邑城을 방어거점으로 삼을 목적으로 개축하고자 한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간의 柳馨遠 등이 제기한 邑城中心論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간의 자료 만

36) 『礪溪隱錄』 卷末, 洪啓禧撰, 「礪溪傳」
37) 『肅宗實錄』 肅宗 4년 6월 20일 己丑條에 ‘前 參奉 裴尙瑜가 상소하기를...중략...故 進士 柳馨遠이 저술한 礪溪隱錄 속의 田制. 兵制. 學制. 등 7조목을 전달하며 차례로 시행하기를 청하므로 廟堂에 내렸더니 廟堂에서 그의 말이 迂闊하다고 하여서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38) 『英祖實錄』 英祖 17년 2월 24일 丁巳條

39) 張明洙, 『城廓發達과 都市計劃研究-全州府城을 중심으로』, 學研文化史, 1994. p.47에서 전제
40) 尹用出, 앞 책, p.100

으로는 趙顯命이 스스로의 성론을 지녔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그러나 금번의 『築城啓草』에 실린 그의 주장은 柳馨遠의 성론과 합치함을 잘 보여준다. 즉,

‘東國人은 守城을 잘한다고 천하에서 이름을 얻은 것은 다름 아니라 三國時代에 邑治가 있던 즉, 모두 城池가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면 곳곳에서 堅壁守城하고 千里가 淸野인 고로 적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번번히 모두 낭패를 당하고 만 것이니 비록 唐太宗과 같은 영웅과 隋梁帝의 병력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실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我朝에 와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성곽이 있는 邑이 팔도를 통털어 계산하더라도 열의 하나 둘에도 미치지 못하며 궁벽한 깊은 오지에 몇 개의 山城을 설치하고 兵亂이 닥치면 자녀와 玉帛을 길거리에 버려 적에게 주고 자기 몸과 처자만 보전하려는 道臣은 의욕이 없고 겁에 질려 있사오며, 담기가 없는 將帥는 머리를 쳐들고 도망치는 쥐와 같이 궁벽한 산의 험준한 곳에 숨어 버리고 맙니다. 이에 君父의 安危나 社稷의 존망을 서로 알 수없는 지역에 놓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하온 즉 邑城이 없는 山城은 不忠한 자를 돕는 所以이며, 곧 신체를 보전할 뿐이지 要衝地를 控除하고 울타리가 되어 王室을 保衛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⁴¹⁾

고 했다. 실로 이 내용은 山城 만을 강조하던 柳成龍을 향해서 ‘아아! 이일을 아는 자는 이해하겠지만, 속된 자와는 말하기도 어렵구나!’고 柳馨遠의 말을 연상케 한다. 오히려 읍성을 마련하지 않고 산성만 두는 것이야말로 국왕과 나라에 대한 不忠이라 단정하면서 읍성 축조를 강조한 데서 柳馨遠이 퍼붓던 비판과 개탄보다 더 강한 논조이다. 그는 이어서

‘이에 신은 일찍이 壬丙의 지나간 일을 개탄하지 않은 바가 없었거니와 비록 邑城이 불가불 설치되어야 하고, 山城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

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읍마다 성곽을 갖추는 것은 실로 금일의 形勢上 가위 가볍게 논의할 바는 아니옵니다. 조그만 邑鎭은 비록 성곽이 진실로 없다고 하더라도 손실될 바가 없지만, 道臣에 있어서는 국가가 위임한 것이 중대하고 그 방면의 安危가 오로지 一身에 달려 있기에 비록 평상시 아무 일이 없는 시기라 하더라도 重門禦暴에 마땅히 그 方略이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早晚緩急의 시기에 一路 人心의 거취가 오로지 道臣의 동정에 달려 있는데, 만약 하나같이 信地를 정하여 높은 성을 굳건히 지켜 自衛함으로써 죽음을 불사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지 않은 즉,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에 어찌 능히 衆心을 진정시켜 一路를 보전하겠습니까. 平壤의 慈母城, 嶺南의 架山城, 海西의 首陽城, 本道の 威鳳城 같은 곳은 모두 道臣이 위급한 상황에 依歸하는 곳으로 삼는 곳이옵니다. 이는 모두 金城湯池와 같은 견고함과 天塹의 험함이 있어서 한번 그 가운데 들어가면 가히 賊鋒은 충분히 면할 수 있사오나 一路를 맡은 道臣이 所屬之身 만을 보살퍼 亂에 임하여 한번 발을 들어 信地로 간 즉 一片孤城 바깥의 千里疆土는 이미 그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亂을 피할 수는 있사오나 장차 要衝을 控除함으로써 藩屏이 王室을 保衛하고 衆心을 진정시켜 一路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옵니다.’⁴²⁾

고 했다. 비교적 긴 인용문이기 하지만, 이 속에는 趙顯命의 邑城中心論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산성이란 아무리 견고하고 천험의 요새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곳 지배세력의 피난처가 될 뿐이지 오히려 국가와 왕실에 큰 해악을 미친다 했다. 그간의 淸野入保에 근거한 山城論을 철저히 비판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趙顯命은 柳馨遠의 성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산성을 방어거점으로 삼는 이른 바 柳成龍의 山城論⁴³⁾에 대해서 平地邑城論을 제기한 대표적 인물이 柳馨遠

42) 각주 41) 참조

43) 『增補文獻備考』 城池關防總論, ‘柳成龍은 말하기를 아아! 적을 방어하려고 오로지 산성 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능히 살피지 못하고 산성이 쓸 데 없는가’ 하면서 산성의 유리한 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41) 『築城啓草』 癸丑十一月二十日, 유재춘, 앞논문, pp.139-140에서 전제

이다. 그는 읍성을 넓고 견고하게 쌓되 몇몇 고을을 합쳐 큰 읍성으로 방어거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예컨대 외따로 떨어진 산성이 포위당하면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함락될 수 밖에 없으나 평지읍성에 규모와 양식을 제대로 갖추고 백성을 충분히 수용하기만 하면 끝내 함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이란 본래 고을을 지키기 위한 것인 즉, 산성과 고을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면 그 본말이 바뀌는 셈이라 했다. 다른 곳에 성을 쌓고 위급할 때 백성들을 뽑아서 들이면 즐겨 들어가려 하지 않아서 줄지에 성이 텅 비게 되므로 만사가 어긋난다⁴⁴⁾는 것이다.

趙顯命은 이를全州邑城의 예를 들면서 그 개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개진한다. 그가 쓴 「豐南門樓記」에는

‘府城이 설치된 것은太祖大王이襄州에서回軍할 때로觀察使崔有慶이 주관했다고 한다. 많은 세월이 지나 무너져서 남은 것이 없는 바, 이는 모두威鳳山城이 있어早晚緩急으로 들어갈 곳으로 하여 방치해서 수축하지 않은 탓이다. 내가道臣으로 부임해서 일면安危를 의탁할 곳을 살펴본 즉 비록 평화로운 때라도重門의 방어는 마땅히 마련되어야 한다...중략...또 본 고을은 호남과 영남의大邑으로湖西로 드나드는咽喉에 해당되어 힘이 다하면 이미 죽게 되니 이를 방치하면 다른 적이 또한大路를 따라 북을 치며 진격할 때 누가 막겠는가⁴⁵⁾

라 하였다. 읍성 개축의 이유로 양남의 대응인 이곳은 호서로 통하는 요지로서 왜구가 침입하면 무인지경의 북상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종전의 방어개념과 다른 것으로 읍성이 퇴락한 것도 이른 바 평지읍성을 버리고 험한 곳인威峯山城에 웅거하는淸野戰法에 의존했던 탓이라 했다.肅宗 원

년(1675)에 쌓은威峯山城은全州 읍민과 군병이 웅거할 산성으로 자리잡고 있었다.山城論에 함몰된 상황에서全州邑城은 개축의 필요성이 전혀 인식될 수 없었던 것이다.⁴⁶⁾趙顯命은 이러한 변화를 3년 전인東萊邑城 개축공사를 통해서 분명히 한 바 있다.東萊는賊路要衝地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란 이래 ‘以無基址’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⁴⁷⁾ 몇 차례의 축성 논의도 산성을 축조하고 그곳에 읍치를 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⁴⁸⁾ 이에肅宗 30년(1704) 府의 북쪽에金井山城을 쌓고 그곳으로 읍치를 옮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산성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폐기됨으로써 읍치 이전은 무산되고, 재차 읍성 축조가 논의되고, 1731년 부사鄭彥燮으로 하여금 읍성을 개축토록 한 것이다.⁴⁹⁾ 趙顯命의 읍성중심론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한편 그가 계획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임閔應洙에 의해서 추진된大邱邑城의 경우도 같은 읍성중심론에서 출발했다.『承政院日記』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에는

46) 『增補文獻備考』 城池關防總論

47) 『肅宗實錄』 肅宗 1년 2월 6일 甲午條

48) 『孝宗實錄』 孝宗 6년 4월 17일 辛未條, 1655년에 부사任義伯이 산성을 쌓고 府治를 옮길 것을 건의한 바 있고, 『顯宗實錄』 顯宗 5년 6월 7일 丁卯條, 1664년에 감사李尙眞이 府治를 옮기고 城池를 새로 갖추 것을 건의했으며, 『肅宗實錄』 肅宗 21년 1월 7일 己巳條, 1695년에 관찰사李寅煥이 白雲山에 산성을 쌓기 위해 도형을 올린 바 있다.

49) 『英祖實錄』 英祖 10년 11월 25일 丙申條에 ‘이 때全州城을 완축하였으므로 判官 具聖弼 및 장교 12인에게 공로가 있다 하여 모두 가자했는데...중략...工曹參判 趙顯命이 鄭彥燮 또한 東萊府의 성을 수축한 공로가 있는데도 의례적인 은전을 입지 못했으니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마침내 이로 인하여 가자되었다. 이 두 성은 모두 趙顯命이 道伯으로 있을 때에 수축되었는데, 鄭彥燮과 具聖弼이 아부하여 상관의 뜻을 잘 받들었으므로 趙顯命이 모두 포장을 가했으나 사람들이 이로써 趙顯命을 단점으로 여겼다’는 기록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44) 『增補文獻備考』 城池關防總論

45) 趙顯命撰, 『豐南門樓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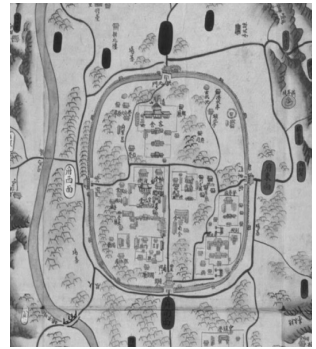
‘左議政 金在魯가 말하기를 慶尙監司 閔應洙가 바야흐로 大邱城을 축조하려는 바...대구란 곳은 평지에 위치해 있어 성곽이 없는데...비록 지킬만한 곳은 아니라도 막을 防塞이 없으면 威儀와 體面에 심히 옳지 않습니다.50)

고 했고, 『英祖實錄』 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에서 大邱城을 쌓을 곳의 지형이 평지인 탓에 성을 지키기는 어려우나 울타리로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51) 다만 金在魯는 대구가 평지라서 지킬 만한 곳은 아니라고 보았던 점에서 여전히 산성에 중점을 둔 견해도 없지 않아서 監營으로서의 威儀와 체면에 문제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趙顯命의 입장은 앞서 全州에서와 같이 평지읍성을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였다. 다만 모든 읍성이 아니라 일부의 대응을 거점으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개축했다. 모든 읍성을 개축한 것이 아니라 방어거점에 해당하는 읍성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柳馨遠이 제시한 이른 바 스산한 고을을 합쳐서 하나의 大邑으로 만들어 이곳에 축성해서 방어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통한다. 柳馨遠이 읍은 산성에다 둘 것이 아니라 성은 반드시 읍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全州邑城 개축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4-3. 城制와 시설의 개선

앞에서 柳馨遠과 趙顯命이 주장한 것처럼은 평지읍성이 방어거점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와 방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읍성들은 규모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趙顯命이 연이어 주관했던 東萊와 大邱邑城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시설도

늘어났다. 東萊邑城의 경우 종전의 성 둘레 3,090척이 17,291척으로 6배가량 늘어나기도 하였다.52) 全州邑城도 개축공사로 종전과는 면모가 크게 달라졌으나 성역의 확대가 다른 성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성역은 치성과 같은 방어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다소 확대되었고 전체적인 윤곽의 큰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53)



<그림 3> 全州邑城圖 (1872년 지방지도, 규장각)

방어시설은 크게 보강되었던 것 같다. 女堞은 종전 기록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으나, 개축되면서 1,3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매 타마다 3개 씩 도합 4천여 개의 포혈도 放射에 편리하게 갖추졌다. 특히 여장 제도는 새로운 성론을 전적으로 적용했다. 종전까지 여장은 대부분 없거나 있어도 너무 낮고 타구는 너무 넓어서 적의 탄환을 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여장 제도의 개선은 개혁적 성론의 주된 논제였다. 예컨대 1597년 都城을 개축할 때 기존 여장은 폭과 너비가 4척이고 타구는 2척에 가까워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지적되었다.54) 그러나 全州邑城에서 趙顯命은 이를 높이 6척, 너비 10척, 타구는 1척으로 당시까지 완벽한 제도로서 인정되던 『紀效新書』의 城制를 제대로 따

52) 『東萊府築城謄錄』, 東萊邑城의 경우 종전의 둘레 3,090척이 17,291척으로, 높이는 13척에서 17척으로, 女堞은 513에서 1,318, 砲樓가 15개나 증가 또는 신설되었다.

53) 『築城啓草』 癸丑十一月二十日

54) 『英祖實錄』 宣祖 30년 3월 3일 癸巳條

50) 『承政院日記』 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

51) 『英祖實錄』 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

르고 있다. 그간 柳馨遠 등이 지침을 삼았던 『紀效新書』의 城制가 제대로 활용된 것이다. 한편 옹성은 줄어든 반면, 치성과 포루는 한층 많이 갖춰졌다. 치성과 포루는 그간의 개혁적 성문의 핵심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시되었다. 총포로 무장한 적군의 접근 공격을 막는 데는 이보다 더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치성은 11개로 크게 늘렸는데, 趙顯命은 그 이유로

‘全州府의 옛 성은 성터 모양이 圓方之制가 아니고 지형에 따라 졸속히 축조되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좋지 못하다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고쳐 잡으려면 민가를 많이 헐어 내야 하고 성터를 만드는 일도 심히 많으므로 대략 옛 터를 따라 축조하면서 골곡진 곳에 雉城을 설치하여야 한다.’⁵⁵⁾

고 했다. 방어 효율상 골곡진 성곽을 바로 잡아야 마땅하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대신 골곡진 취락지 마다 치성을 설치해서 보완하자라는 것이었다. 또한 성문 네 곳에 모두 누각을 설치하고 그 중 남문은 2층으로 만들었다.⁵⁶⁾ 기습공격을 위한 暗門도 두 곳에 설치되는 등 종전과는 달리 방어시설 면에서는 크게 보강되었다.

그런 점에서 全州邑城 개축공사는 그간의 새로운 城制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임란 이후 趙顯命에 의한 전주읍성 개축공사는 그 자신이 기획했던 東萊邑城 개축 외에는 달리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 직후의 大邱邑城 개축에는 물론이고 正祖 연간의 華城 축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선례로서 활용되기

충분했음을 짐작케 한다.

5. 趙顯命의 工役節減 노력

5-1. 地方長官의 物力調達

趙顯命 등은 축성에 소요되는 물력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이른바 料辦取利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지방장관 책임 하에 물력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는 이러한 방식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앞서 그가 東萊邑城을 개축하면서 公作米를 殖利해서 공사비용을 마련한 데 대해서 많은 논란과 비난이 뒤따랐다. 그러나 오히려 英祖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포상도 했다.⁵⁷⁾ 중앙정부의 손을 빌지 않고 국고를 축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料辦取利 방식이 이로부터 축성경비를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지방장관이 축성을 책임지는 것은 종전부터 시행되고는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축성이라 해도 국가적 사업이었던 만큼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임란 전 文宗 연간에 鄭芬이 下三道體察使 및 黃海道體察使가 되어 三南과 北方의 각 읍성에 대한 축조상태와 시설을 조사하여 수축 여부를 보고하기도 했다.⁵⁸⁾ 이후 축성은 해당지역의 수령에게 책임지게 해서 개, 보수하게 하되 그 감독하는 일은 조정에서 파견한 체찰사나 종사관이 맡게 했다.⁵⁹⁾ 공역동원이나 재원조달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했던 것이다.

55) 『築城啓草』 癸丑十一月二十日, 유재춘, 앞 논문, p.144에서 전재

56) 『全州府邑誌』에는 南門을 3층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2층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성문을 2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戚繼光의 『紀效新書』에도 나와 있어서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57) 『英祖實錄』 英祖 10년 11월 25일 丙申條
58) 『文宗實錄』 文宗 원년 9월 19일 庚申條 및 文宗 1년 2월 18일 丁亥條 등에서 참고된다.

59) 『文宗實錄』 文宗 원년 10월 8일 戊寅條와 임란 후의 『仁祖實錄』 仁祖 3년 7월 4일 庚戌條 등에 ‘都體察使, 從事官 등을 파견해 공역을 감독케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앞서 柳馨遠과 같은 이는 중앙정부에서 과견된 사신들이 축성을 관장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오히려 지방장관에게 일임해서 군인을 징발하되 농한기에 쌓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서투른 지휘관에게 맡겨서는 工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뇌물이나 챙기는 탓에 애잔한 군인들만 고통을 받고, 쌓은 성도 매 번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⁶⁰⁾ 요컨대 지방장관에게 맡기되 성곽 규모와 제도에 정통한 인재를 골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장관이 料辦取利에 의한 조달방식은 肅宗 30년(1704) 釜山鎭城 수축 때⁶¹⁾나 肅宗 39년(1713)에 金井山城 개축 때 그 경비의 일부를 조정에서 마련해 줄 것이 논의된⁶²⁾데서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짐차募軍雇立制나 工匠賃金制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져갔으므로 국고를 지원 받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稅收를 殖利하는 것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이 무렵 인구가 증가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른 바 料辦取利로 이익을 남기는 대응에서 料辦取利에 의한 이익을 영선비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趙顯命은 이러한 방식을 1731년 東萊邑城 개축 때 충분히 활용한 바 있다. 당시 東萊府에서는 통상적인 전결세 외에 왜에 지급되던 公作米의 관리를 맡으면서 이른 바 料販取利에 의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관찰사 趙顯命과 부사 鄭彦燮이 이를 통하여 공사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料販取利은 편법이었던 만큼 英祖 8년(1732)에 부사직 朴師洙에 의해서 경상감영과 동래부가 함께 관련된 ‘公作米料販殖利之弊’가 지적되기도 했다. 趙顯命 등이 왜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작미 1만여 석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려 발매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⁶³⁾는 것으로 수차례 고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英祖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⁶⁴⁾ 全州邑城 축조 때도 趙顯命은 그 스스로 재원을 마련했음을 밝히고 있다. 料販取利 방식을 충분히 경험한 만큼 全州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오히려 공사 중지를 무마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으로 쓰이기까지 했다.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에는

‘臣이 스스로 財力을 마련하여 이미 이를 충분히 갖추었습니다...중략...米 4,000석, 錢 1,400량, 木 50동, 鐵 25,000근, 炭 3,000석, 葛 600동, 童車 250건을 이미 모두 마련하였고, 판관으로 하여금 맡겨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城役에 들어갈 재원의 實數입니다.’⁶⁵⁾

고 한 것이다. 이러한 물력의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국왕에게 상소한 내용 중에 산하 고을의 營吏들이 賑恤米를 착복한 것이 막대한 양이었고 여러 곳에 이산해 있던 것을 수습했다고 한다. 또한 대간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그 자금으로 진흙에 쓰라고 한 바도 있다.⁶⁶⁾ 아마도 진흙미를 수습해서 불린 자금이 주된 재원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60) 『礪溪隱錄』 城池條

61) 『肅宗實錄』 肅宗 30년 9월 30일 丁卯條, ‘此城最爲緊急 故新僉使下去時 臣面言留心修築之意 而功力似不逮此則宜自朝家助之矣’라 했다.

62) 『肅宗實錄』 肅宗 39년 8월 11일 丙戌條, ‘若欲一時改築 則雖盡一道之力 未易完畢 廟堂若取其全城 分作幾段 而劃給財力於道臣守臣 善加區劃 每年築其一段 漸次成築 則不十年 可作完城’이라 하여 지방 城役이 수령의 책무였지만 중앙정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63) 『英祖實錄』 英祖 8년 7월 29일 癸丑條

64) 尹用出, 앞 책, p.99

65)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 ‘臣所辦財力 既足了此...中略...米四千石 錢一千四百兩 木五十同 鐵二萬五千斤 炭三千石 葛六百同 童車二百五十件 皆以質辦 出付判官 使之專管舉行 此則城役財用之實數也’

66)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

한편 大邱의 경우 물자의 액수는 알 수 없으나 自辦料利의 조달방식은 다르지 않았다. 「嶺營築城碑」에는 그 비용이 모두 감영에서 마련한 것으로 아끼고 저축해서 이자를 놓아 불린 것이라⁶⁷⁾했다. 또한 『承政院日記』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에도 관찰사 閔應洙가 大邱城을 축조하고자 하는데 물력은 번거로이 朝家에 요청하지 않는다⁶⁸⁾고 했다. 앞서 柳馨遠도 이제부터 축성은 중앙정부에서 사신을 파견하지 말고 지방장관에게 맡기라고 했다. 지방장관이 공역동원을 책임질 뿐 아니라 재원을 마련하는 일까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종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액을 지원 받던 경우와 적지 않게 달라진 점이다.⁶⁹⁾

이후 鄭若鏞도 「牧民心書」에서 지방관아의 公廩 등을 수리할 때 「瓣財之法」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에서의 營繕工事は 모두 감사와 상의할 것이며, 한편으로 質穀을 통해서 잉여를 마련할 것을 권하고⁷⁰⁾ 있다. 料辦取利에 의한 공사비 마련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었던 것이다.

5-2. 童車의 제작과 활용

임란 이래 축성공역의 주축은 烟軍과 軍

校, 僧軍이었다. 그러나 烟軍의 사역은 해가 갈수록 크게 제한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僧軍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을 사역시키더라도 급량을 해서 샅군과 다름없이 대우한다고 했던⁷¹⁾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져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雇價를 지불해야 하는 募軍을 사용해야 할 정도였으므로 공역절감을 위한 방안은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全州邑城 축조 때 趙顯命이 취했던 공역절감을 위한 방안이 크게 주목된다. 그는 대간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할 때 童車를 제작해 사용함으로써 공역을 크게 절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해했다. 『承政院日記』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에는

‘臣이 일찍이 東萊에서 축성할 때 丁夫가 27만 명이 필요했으나, 금번에 調發한 수는 극히 적은데, 이는 모두 童車를 별도로 만들고, 5명을 여기에 부쳐서 돌을 나르게 하여 工力を 크게 간편히 한 까닭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役丁을 調發해 썼습니다. 또 옛 성의 돌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절반에 달하므로 새로 들어온 돌은 2만여 塊에 불과했습니다. 정월 10일간 伐石을 시작했는데, 고용한 샅군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수십일 간 伐石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⁷²⁾

고 하여 童車를 제작해서 여기에 다섯 명으로 작업 단위를 편성했다는 것이다. 축성계초에는 당시 조현명이 조발한 동거는 그 중

67) 「嶺營築城碑」, ‘而無非取辦於營 需之節縮 販植之奇羨矣’라 했다.

68) 『承政院日記』英祖 12년 1월 22일 丁巳條, ‘在魯曰慶尙監司閔應洙 方築大邱城 而物力則不煩請得於朝家’라 했다.

69) 東萊邑城 축조 때 ‘料辦取利’의 조달방식은 국고를 축내지 않는 일로 칭찬과 포상을 받았던 만큼 새로운 조달방식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직전인 肅宗 30년(1704)에 이곳의 釜山鎭城을 수축할 때나 肅宗 39년(1713)에 金井山城에 대한 개축을 논의할 때 그 경비의 일부를 조정에서 마련하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이후 鄭若鏞도 「牧民心書」에서 지방관아의 公廩 등을 수리할 때 「瓣財之法」은 모두 감사와 상의할 것이며, 한편으로 質穀을 통해서 잉여를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70) 尹用出, 앞 책, p.100에서 제인용

71) 『承政院日記』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에는 趙顯命이 ‘도내 僧軍 5,000명을 調發해서 5일간 부역시키고 南. 北漢山城 부역을 면하게 해서 雇軍처럼 사역시켰다고 했다. 烟軍은 본 府와 인근 고을을 대상으로 농사철을 피해서 동원되 제난을 입지 않은 고을에서 5,000명을 5일간 동원했다. 또한 官奴 5,60명, 使令 등이 2,30명 동원하고, 죄지는 자 중 400여명을 속죄하는 조건으로 동원했다. 본 府. 營에 속한 軍兵 6,000명을 2일간 부역 시켰는데, 이러한 役軍들에게 급량함으로써 雇軍을 쓴 것과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히 京雇軍 200명을 동원하고, 소를 가진 사람으로 자원해서 돌 1곡씩 실어 나르게 했다’고 보고한다.

72) 『承政院日記』英祖 10년 3월 7일 癸未條

류가 童車, 大童車, 營造童車, 車子 등 모두 4가지였다. 다만 그 수는 童車가 418건이었고, 나머지는 극히 소량이었다.⁷³⁾ 현재로서 童車의 圖說이 전해지지 않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趙顯命의 말대로 무거운 돌이나 목재를 운반할 때 쓰는 수레로서 여기에 5명을 한 조로 투입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덕분에 역군의 수를 3년 전의 東萊邑城 개축 때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였고 특히 雇價를 지급해야 하는 募軍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했다. 그렇다면 東萊邑城 개축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셈이다. 적어도 이 무렵까지 축성공사에 童車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全州邑城에서 처음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임란 중 都城을 수축할 때 童車의 활용이 제시되기는 했다.⁷⁴⁾ 그러나 그 공사는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했고, 또한 어떤 형태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후로는 축성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만큼 童車의 대거 사용은 全州邑城 개축이 그 시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년 뒤의 대구읍성 축조 때도 동거는 대거 활용되었을 것이다. 大邱邑城 때는 東萊에 비해서 역군 수가 1/3로 대거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童車의 활용은 趙顯命으로서는 공역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자 최대의 성과였음이 틀림없다. 그 스스로 자신하는 바와 같이 童車의 활용과 5명을 거기에 부처서 작업하게 한 것은 공사 중지로 쏠리던 마음

을 돌려놓기까지 한 것이다.

5-3. 束伍制의 工役編制

趙顯命은 童車를 제작해서 거기에 5명 단위를 한 조로 해서 일을 맡김으로써 공역을 크게 절감했다고 말한다. 5명 단위로 작업조를 짜는 것은 束伍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이른 바 5위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묻게 하는 이 방식은 원래 임란 중에 기효신서의 제도에 따라 마련된 군대 편제방식이었다. 그런 것이 축성공사의 공역편제에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공역편제는 일찍이 柳馨遠이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전체로는 전, 후 또는 좌, 우로 나누고 다시 3, 또는 5단위로 하부 단위를 짜 내려 가서는 최종 단위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식이다. 趙顯命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역 편제를 하고 있다. 全州邑城 개축 때 趙顯命은 축성 역소를 좌, 우로 나누고, 좌 1소와 좌 2소, 우 1소와 우 2소로 역소를 4개로 나뉘서 공사구역을 할당했다. 역소별로는 각기 책임자 1명과 1-3명의 色吏와 差使가 그를 보좌토록 했다. 또한 역소별로 작업 단위로서 각기 10패를 각 패를 통솔하는 10명의 牌將과 다시 이들을 통솔하는 都牌將 1인씩을 두었다. 이른 바 束伍制에서 5명 1伍가 되고, 5伍가 1隊, 3隊가 1旗, 3旗가 1哨, 5哨가 1司, 5司가 1營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지휘편제와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부대편제와 같은 식이다.

한편 大邱邑城 축조 때는 역군을 100牌로 조직해서 담당구역을 책임지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東萊邑城 축조 때에도 시도되었는데, 그 때는 공사규모가 적었던지 60牌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牌 단위의 공사조직은 일찍이 柳馨遠이 제시했던 만큼 적어도 17세기 중반

73) 유계춘, 앞 논문, p.148

74) 『宣祖實錄』 宣祖 30년 5월 12일 壬寅條, 비변사가 아뢰기를, 만일 먼저 曲城과 砲樓를 세울 곳을 정한 다음 차츰 사람을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게 하되 부족한 인력은 안집도감과 훈련도감에 있는 수십 마리의 소를 차출해 내게 하고, 또 동거로 수송하여 그곳에 운반한다면 차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 했다.

까지 는 이러한 방식이 통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일부 관영공사에서 等牌將이란 직명이 보이기는 하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⁷⁵⁾ 그런 점에서 이 무렵의 축성 때 牌 단위의 구역담당제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趙顯命은 1743년에 右議政으로 있을 때 都城과 江華島의 성곽을 軍門에서 4면의 구역을 나누어 그 수축을 책임지게 할 것을 英祖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東萊에서의 경험은 全州에서 활용되고, 다시 그 경험은 大邱에서 활용되기 이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옛 성의 돌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다시 사용하고, 또한 농사철이 아닌 1, 2월에 공사를 함으로써 연군의 동원을 원활히 했기 때문이라 했다. 특히 그는 毀撤 작업을 하면서 한 편에서는 돌 쌓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애초 담당구역을 정해서 책임지도록 한 만큼 毀撤과 돌쌓기 등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3개월이란 극히 짧은 기간에 완공⁷⁶⁾된 것도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다.

표 9는 全州와 大邱 및 東萊邑城의 축조규모와 공사일정, 동원인원을 비교해 본 것이다. 세 공사 모두 體城 쌓기 전의 伐石에서 女牆 쌓기까지 대략 3~5개월이란 극히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특히 全州는 3개월로 가장 짧았다.⁷⁷⁾ 趙顯命이 옛 석재를 절반가량 쓰고 童車를 만드는 등으로 작업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전체 공사인력은 171,485명이었고, 2년 뒤의 大邱에서는 78,584명으로 더욱 줄여 갔다.⁷⁸⁾ 이러한 숫자는 5년 전의 東萊邑城 공사 때의 27만 명⁷⁹⁾에 비하면 각기 1/2 내지는 1/3에 불과한 숫자다. 공사규모가 훨씬 더 컸음에도 앞서의 공사 때보다 오히려 역군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역을 크게 절감했음을 반증한다.

6. 맺는말

본 연구는 1734년 전라도 관찰사 趙顯命에 의한 全州邑城 개축공사를 대상으로 축성의 배경을 규명하고, 성곽규모와 시설, 공역과 집행방식 등을 통해서 英祖의 측근인물들이 새로운 城論을 어떻게 적용하고, 공역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갔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다음은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全州邑城 개축공사의 목적은 3년 전의 東萊邑城이나 2년 후의 大邱邑城과 마찬가지로

[표 9] 세 邑城의 工事期間과 役軍數

邑城	年度	體城길이	工事日程				動員人員
			始役	1일	6월	20일	
全州	1734	15,708척	4월	1일	6월	20일	171,485명
大邱	1736	12,744척	1월	8일	6월	6일	78,585명
東萊	1731	17,291척	1월	27일	5월	24일	270,000명

75) 예컨대 건축공사의 경우 1652년의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에는 각 소별로 10명씩의 領役部將 만이 기록되는 반면, 1805년의 『仁政殿營建都監儀軌』에는 都牌將에 해당하는 募軍都等牌 3인, 擔軍都等牌 2명이 기록되고 있다.

76) 趙顯命撰, 「豐南門樓記」에 “翌年甲寅五月甲申 告祭城隍 擬舊城 伐木於黃方山黑石之洞 二月三月運石 四月五月六月參新舊石築之 七月八月設虹霓 建門於是乎”라 했다. 그런데 甲寅五月는 甲寅正月의 오자인 것 같다. 왜냐 하면 山祭를 올리는 것이 공사 이후인 5월일 수 없기 때문이다.

77) 예컨대 1705년의 龜城邑城이나 1725년의 黃州邑城의 축조는 3, 4년 이상이 걸렸다.

78) 『大邱府史』大邱府, 1943, p.171, 大邱府와 인근 읍의 雜色軍을 위시해서 大邱, 漆谷의 烟軍, 함경도 6鎭의 束伍軍, 산성의 牙兵, 도내 僧軍 등이 동원되었는데, 78,584명이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79) 「東萊府築城謄錄」에는 동원된 역군은 연인원 417,050명이라 했다. 따라서 趙顯命이 東萊邑城 축조 때의 27만 명은 아마도 體城 쌓는 역군만을 지칭한 것 같다.

가지로 표면적으로는 남변의 방비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728년에 발생한 戊申亂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란을 진압한 직후 그 배후세력인 在地南人을 제압하고 그 근거지였던 호남의 최대 거점인 이 지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英祖의 측근들을 파견해서 임란 이후 방치되었던 읍성을 대대적으로 축조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축성을 주관했던 趙顯命은 英祖의 탕평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측근 인물이다. 趙顯命은 柳馨遠의 개혁사상을 접하고 있었던 만큼 임란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읍성축조 때 그간에 제기된 柳馨遠의 새로운 성론과 공역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적용하고 시험했음이 분명하다. 『築城啓草』에 실린 그의 주장은 柳馨遠의 성론과 합치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읍성의 규모나 시설과 당시의 공사방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셋째, 全州邑城은 18세기 초반 들어 평지 읍성을 방어거점으로 삼는 새로운 방어전략에 따라 축조되었다. 방어개념에서도 趙顯命의 성론과 柳馨遠이 제기했던 개혁적 성론은 합치하고 있어서 평지읍성을 방어거점으로 삼아서 많은 常居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각종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임란 이래의 개혁적 성론이 全州邑城에서 의해서 구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축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과 공사 집행은 전적으로 지방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全州邑城의 축조를 위해 趙顯命은 그 스스로 재원을 마련했음을 밝히고 있다. 趙顯命은 料販取利 방식을 충분히 경험한 만큼 全州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柳馨遠 등이 주장한 축성 재원의 자체 조달론에 따른,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料辦取利에 의한

조달방식은 이 무렵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趙顯命 등은 앞선 공사를 경험으로 童車를 제작해서 伍長 책임 하에 공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역을 크게 절감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다. 그 결과 앞선 東萊邑城 때보다 역군 수를 크게 절약하고 공사기간도 앞당길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牌將 또는 伍長 책임 하의 공사방식은 柳馨遠이 또한 제안했던 것으로 새로운 공사방식이 이들에게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1. 유재춘, 「18세기 全州府城 築城記錄 <築城啓草> 研究」, 『한국사 연구와 고문서』, 한국사학회·한국고문서학회·강원대학교 공동심포지움 자료, 2005. 10
2. 『承政院日記』
3. 『備邊司謄錄』
4. 『新增東國輿地勝覽』
5. 『孝宗實錄』
6. 『顯宗實錄』
7. 『肅宗實錄』
8. 『景宗實錄』
9. 『英祖實錄』
10. 『全州府邑誌』
11. 『大邱府邑誌』
12. 閔應洙 撰, 「嶺營築城碑」
13. 趙顯命撰, 「豐南門樓記」
14. 柳馨遠, 『礪溪隱錄』
15. 張明洙, 『城廓發達과 都市計劃研究-全州府城을 중심으로』, 學研文化史, 1994
16. 尹用出,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한국문화연구』 2집, 1989

A Review on the Reconstruction of *Jeonju Eupsung* during the early years of King *Young-Joe*

Seo, Chi-Sang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Cho, Hyung-Rai

(Ph.D candidate, School of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rough reinvestigations of early years of King *Young-Joe* provincial castles, *Jeonju Eupsung*, this study seek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astle construction of the later period of *Chosun* Dynasty. *Jeonju Eupsung* was established by reform-minded king and his loyalist *Cho, Hyun Myung*. Their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reconstruction of *Jeonju Eupsung* was affected by *Yoo, Hyung Won*, a realist scholar of 17th century. It is obvious that adopted new administrative systems of financing, building and maintaining of *Jeonju Eupsung* were based on the his theories of castl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Jeonju Eupsung* built by *Cho, Hyun Myung*, during the early years of King *Young-Joe* were based on those new concepts and systems of the new age. The study shows that the designer of this castle had in mind efficient construction design and execution and effective defense of provincial towns located on flat ground. And, the study explains how those original designer sought higher productivity through greater localization of securing resources and more detailed and improved organization of construction responsibilities.

In short, this study seeks to prove that the provincial castles of the early 18th century reflected the new thinking on practicality that was spreading throughout the society of *Chosun* Dynasty at the time.

Keywords : Cho, Hyun Myung, *Jeonju Eupsung*, Reconstruction, Theories on castle, Saving construction expenses
